

2012 봄이야기 vol.165  
www.holt.or.kr

#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 홀트소식



## 봄 이야기

윤석(가명, 16개월)이와 영호(가명, 17개월)는 홀트  
일시보호소의 만형이자 절친한 친구입니다. 영  
호는 미숙이었다고는 믿기 힘들만큼 건강해졌고  
지금은 오히려 음식조절(?)을 하고 있네요. 홀  
트일시보호소 애교쟁이 윤석이와 영호는 울해가  
지나면 서로 헤어져야겠조? 각기 다른 입양가정  
에서 자라겠지만 어릴 적 서로 똥굴며 자했던 친  
구와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봄바람을 기다리며 가져봅니다.

사진 | 지나 정 사진작가 후원

# Contents

- 02 Holt Letter  
홀트 가족 여러분! 2012년 행복한 시작을 기원합니다
- 04 사업안내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 08 입양, 우리품으로  
입양, 다르지 않아요!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 10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희망아! 참 다행이야! 너를 도울 수 있어서...
- 12 캄보디아 희망플러스  
아이봉사단 파란 스타가 트라피앙 안찬마을에 왔어요!
- 15 기획  
장애입양인을 위한 Happy Together 2011
- 18 위탁모 수기  
사랑의 가치를 나누다
- 20 나눔氣Up  
몰래산타가 왔어요
- 22 기관탐방  
주민과 함께 사랑을 행동으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 26 Holt 게시판  
나눔! 어렵지 않아요!  
2011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 28 Holt News

- 32 Thanks to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65호 · 계간 발행일 | 2012년 3월 20일 발행일 | 말리홀트 편집인 | 민경태 발간  
위원 | 이춘근(자원개발실장), 신미숙(후원팀장), 홍미경(홍보팀장), 성경희(아동양육팀장),  
최안여(국내입양팀장), 김재현(하남시복지관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30 주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4-70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  
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 이혜경  
이새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임부용 이사(HCN 아시아  
책임자)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  
사 대표) |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홍현국 감사(공  
인회계사)

###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미혼모자사업문의 T.080-332-7501

###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4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부천사무소 www.bcholt.or.kr T.032)322-2797  
울산사무소 www.ulsanholt.or.kr T.052)243-9671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 일산요양원  
T.031)914-6631.6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2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4  
입양가정지원센터 T.02)322-8104  
홀트아동발달지원센터 T.053)627-8875  
전주영아원 T.063)222-1559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 · 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사랑뜰 www.holllove.or.kr T.053)756-0183  
마포클로버 T.02)322-3325  
대전클로버 T.042)583-4006

#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홀트아동복지회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통 받고 있던 고아와 혼혈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복지사업을 시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57년이 지난 지금, 아동복지, 미혼부모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를 비롯하여 북한아동·다문화가족, 빈곤국가 지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 사무소와 5개 종합사회복지관, 6개 미혼모자시설, 아동보호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과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손길  
홀트가 펼쳤습니다.



## 입양복지사업

### ▶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시작된 입양복지사업

해리 홀트 씨는 미국 내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며 1956년 10월 당시 후원하던 한국전쟁고아 8명을 입양.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부모의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홀트 아동복지회 설립 기본 정신이며 한국과 세계 입양복지사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 ▶ 전국 13개 전문상담소 운영

입양은 출산과 다름없기에 상담기관 선택이 중요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7년 가장 먼저 국내입양을 시작하여 약 23,000명의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었으며, 2011년 전체 1,548명(22개 기관 합계) 국내입양 아동 중 551명(36%)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연결될 만큼 믿음과 신뢰,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 입양가정지원프로그램

입양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입양 후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상담과 교육·의료 지원과, 가족캠프, 입양가족자조모임(홀트한사랑회 [www.holtlove.net](http://www.holtlove.net))을 지원, 입양가정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육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 국외입양인을 위한 친가족찾기·모국방문 및 모국정착 지원

국외입양인들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모국방문과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가족 뿌리찾기 지원, 통역·번역 서비스, 민박지원과 모국정착을 돕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트는 어린이들의 따뜻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 가정위탁보호사업

### ▶ 홀로된 영유아 가정위탁보호

계획되지 않은 임신, 빈곤, 가정 붕괴 등의 이유로 인해 생후 1개월에서 2~3세 미만 어린 아기를 1,000여 명이 위탁가정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지능·언어·신체·정서 발달의 중요한 때인 만큼 시설보다는 안정된 가정환경이 중요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65년부터 가정위탁사업을 시작, 현재 전국 550여 위탁가정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 ▶ 연장아 및 발달지체아동 특수교육 지원

만 1세 이상 연장아 아동들의 신체·사회적 발달 도모와 발달지체 아동들을 위한 지능·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홀트의원 정기검진과 치료

위탁보호 중인 아동 중 상당수가 의료문제를 갖고 있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홀트의원을 운영, 전문 의료진들이 매월 건강검진을 통해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위탁봉사가정 모집 : 서울 02-331-7040~6 / 전국 1588-7501

## 아동보육사업

### ▶ 전주영아원·일시보호소 운영

빈곤, 부모의 이혼, 학대, 기아 등으로 가정을 잃어버린 아동들과 아기들을 위해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성장과 교육, 입양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키우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 위기 상담 및 생활보호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모와 가족 그리고 아동양육이 어려운 빈곤여성가정을 위해 24시간 긴급 상담전화 및 상담소를 운영,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아동장래상담, 양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빈곤 미혼모자가정 생활 지원

홀로 아기를 양육하고 하고 있는 지역사회 미혼모자가정에 상담서비스와 양육비, 양육물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가정에서 안정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 미혼모들의 교육권리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임신으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유지를 위해 2010년 10월 홀트고운학교 설립, 중·고등부과정을 수료,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제공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을 위해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 운영, 무료로 숙식과 의료 제공뿐 아니라 심리상담과치료, 자립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재활의지를 받든습니다.

## 장애인복지사업

### ▶ 홀로장애인 보호사업 및 재활·자립프로그램 지원

영아부터 장년층까지 돌보아 줄 가정이 없는 약 270여 명의 장애인들을 위해 일산복지타운·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재활치료와 교육훈련(의료·스포츠·직업재활프로그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단기가정위탁프로그램, Activity Center,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여 지역사회통합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영혼의 소리' 합창단·홀트휠체어농구단 운영 등 예술과 체육활동 등을 통한 재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 주간보호센터

일산복지타운과 고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낮 동안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지역사회 장애인가정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특수교육산실 홀트학교

지역사회 정신지체를 지닌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1975년 특수학교인 홀트학교를 설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 250여 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전공과 건립과 경기고양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정을 위해 생활도우미파견뿐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도우미뱅크를 운영, 활동보조, 교육지원, 간병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스포츠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체육·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지역사회복지사업

#### ▶ 지역사회보호 및 교육사업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가족기능 정상화를 돕는 가족(위기)상담, 부모교육, 저소득층 공부방, 법률상담, 청소년 상담·지도,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 가족복지를 돕고 있으며 또 문화강좌를 통한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독거노인을 위한 홀트원스탑지원센터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로 2006년부터 홀트원스탑지원센터를 운영, 모닝콜서비스를 비롯하여, 방문 상담, 건강, 여가, 안전 등을 돕고 있습니다.

#### ▶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족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구, 하남 등 5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희망장학금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1982년부터 장학금 지원을 시작, 8,972명에게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비롯하여 아름다운청소년 10인 선정, 전국 300명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역후원회 활동

지역사회 적합한 모금활동 및 자원봉사를 위해 전국 16곳에 홀트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건강가정사업

####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가족성장에 따른 교육사업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가족을 돕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우리사회 확대되는 다문화가족들을 돕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3곳에 운영하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과 상담, 자녀 양육 및 의료 등을 도와 우리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빈곤국 원조사업

#### ▶ 북한아동돕기

북한의 부족한 물자와 식량으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북한아동을 위해 2002년부터 분유 지원과 함께 육아원 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 캄보디아 아동지원사업

인구 절반이 아동·청소년인 캄보디아 아동들은 빈곤과 질병, 무지와 착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교육사업 및 빈곤가정 지원사업 그리고 캄보디아 아동복지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초청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업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가정복지연구소를 설립, 사회복지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가 어느덧 3월을 맞고 있습니다.

아쉬운 한 해를 보내고 설레는 새해를 맞은 일이 엇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늦은 인사지만 2012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홀트가족 여러분! 홀트아동복지회의 중심에는 아동이 있습니다. 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외지원사업으로 해외빈곤아동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홀트의 시작이 한국전쟁으로 상처받은 아동의 행복을 위하여듯이 세계 최빈곤 국가인 캄보디아 아동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선 홀트캄보디아 사무소와 홀트드림센터를 개설하여 강제철거민들의 정착지인 트라피앙 안전지역 아동들을 위한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자 파견하여 아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보건위생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자녀가 급식으로 건강해 지고 공부를 새롭게 할 수 있어 기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홀트일산복지타운이 설립 50년을 맞는 뜻 깊은 날도 있었습니다. 1961년 12월 황량한 대지에 임시 천막을 치고 퐁퐁 언 땅을 삼으로 다지며 건물을 세운 시작이 지금은 270여 명의 장애인들이 배우고 삶을 영위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모국방문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국외입양인과 그 가족들을 처음으로 초청하여 모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선행의 시작'은 '또 다른 행복'을 피어나게 합니다.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함께 펼친 아름다운 시작과 끝을 홀트아동복지회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 나눔사업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은 1월에도 어느 노신사분이 4억 원을 기부하며 좋은 곳에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만을 밝히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홀트역사상 가장 큰 기부금이었습니다. 또한 첫 월급을 기부한다고 찾아 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분들로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은 2012년도 확대 이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홀트아동복지회 본부가 신사옥으로 이전합니다. 1960년대부터 복지사업을 펼쳤던 그 터에서 다시 새롭게 복지사업을 실천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금년에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소중한 아동들과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한해가 홀트 가족 여러분들의 삶속에서도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홀트 가족 여러분!

2012년  
행복한 시작을  
기원합니다

입양, 다르지 않아요!

#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예요!

“입양하면 아직 낯설다고요? 입양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주저 말고 입양가정지원센터와 홀트한사랑회로 연락주세요!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란 입양행복 이야기와 그동안 가진 편견을 바꿔드릴 기회를 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홀트한사랑회(홀트입양가족모임) 주최로 2월 28일 열린 '제1회 유치원아동을 위한 반편견강사교육'에 참여한 12명의 입양부모들이 “입양, 우리사회가 버려주었으면 하는 편견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 입양가족, 입양아들에게 갖는 각가지 편견들

잘못된 입양 편견

“참 좋은 일 하셨어요”



김창호  
(하민, 하울 입양)

“입양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라고 말해요. 내 아이를 낳았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처음에는 “네~”했는데 자꾸 들으면 불편해요! 입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이에요!” 김창호(하민, 하울 입양) 씨는 이런 말도 편견이라고 말했다.

5살 찬희 엄마인 김화목 씨는 ‘편견’ 그 자체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나와 다를 것이다’ ‘입양했기 때문에 우울할 것이다’ 등의 편견들을 적잖게 만난다고. “한번은 어린이집 선생님께 ‘찬희를 입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답답이라 사실을 전달한 것뿐인데 선생님 말씀이 “입양아치고는 활발하네요!”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음날부터는 화목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다른 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까지 해 주셨죠. 나름 선생님이라 교육적 시각으로 보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때 정말 ‘편견’이란 게 무섭구나 생각했죠.”

초등학생 두 딸을 입양해 키우는 김인순 씨도 학교에서 자녀들이 편견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적잖다고 전했다. 특히 드라마나 혹은 어른들이 ‘입양’에 대해 편협하게 말했던 언어들 친구

들이 그대로 흉내 내고 사용한다는 걸 첫째 윤정아한테 듣고서는 한편으로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고.

이런 여러 '편견' 때문에 입양부모들은 입양사실 공개에 적잖은 '고민'에 빠진다고 김정아 씨(윤수, 준수 입양)는 말한다. '입양아가 예쁘고 활발하면 '입양아라니 불쌍하다' 말하고, 입양아가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키면 '입양아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쫓쫓쫓 혀를 찬다'며 아이의 모든 상황을 '입양으로 연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화를 나누는 대다수 입양부모님이 원하는 건 '입양은 사실이다', '평범하고 다름이 없는', '출산과 똑같다'를 우리사회가 체득하길 바랐다. 출산이나 입양이나 어떤 방법을 통했건 사랑하는 '딸', '아들'이 좋은 교우관계 속에 자라고 원만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 어느 부모나 똑 같기 때문이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한 국내입양 수만 2만 3천여 명을 넘고, 21개의 국내입양기관과 민법 입양자를 포함하면 우리사회에 드러나지 않을 뿐, 많은 수의 입양인과 가족들이 내 가족으로, 내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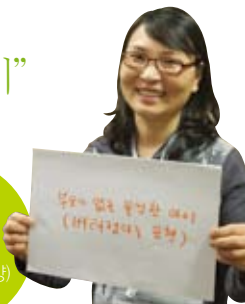
### 입양, 어렵지 않아요! 내 가족이에요!

'유치원아동을 위한 반편견강사교육'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홀트입양가족모임인 '홀트한사랑회'의 주최로 열렸다. 현재 초·중·고는 일부 '입양반편견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유치원과정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편견' 형성이 가장 적은 유치원에서부터 올바른

잘못된 입양 편견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  
(버려졌다는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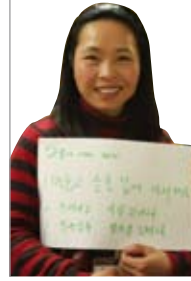
진길순  
(6살, 4살, 지원, 규원 입양)



잘못된 입양 편견

1. 어둡고 슬픈 일이 아니예요.
2. 문제아로 자랄 것이다.
3. 생부모를 찾아갈 것이다.

한상희  
(6살, 예린 입양)



시선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입양자녀'들이 가장 먼저 교우관계를 맺고, 가장 먼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라는 질문과 답을 얻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강은미 씨(홀트한사랑회 회장)는 우선 강의 전 입양부모 스스로가 갖는 입양편견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내 아이에게 '입양'이 상처가 될 것이다. '사랑'으로 키우면 커서 이해해 줄 것이다. '공개입양'하면 아이는 놀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부모 스스로 갖고 있다 보면 '반편견교육'은 그저 입양 부모모써 내 아이를 '방어'하는 것 혹은 '변명' 밖에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입양은 분명 우리사회 아직 '출산'과 똑같다는 인식보다는 '부모없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등의 낮은 이해가 있다. 작은 시작이지만 입양에 대해 사회가 모른다면 '가르쳐 주자'는 것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12명의 입양부모의 마음이었다. 교육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를 넘겼다. 입양의 이해부터 교수법, 직접 1:1 시현까지 이루어졌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부터 깨뜨리고 싶었고, 나와 우리 가족이 '입양'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잘 섞여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있다면 서고 싶어요.” 6살 주희 엄마 이미애 씨는 입양반편견교육에 참석한 이유이다.

이미 입양은 우리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사회도 이제 이들에게 '편견'이 아닌 '축하, 응원의 박수'를 보낼 때가 아닌가 묻고 싶다. **홀트**

글 김은희 · 홍보팀

입양반편견교육 문의 \_ 02-322-8104



희망이 머리가 하얀 붕대로 감겨 있다. 얼마나 아팠을까?! 희망이의 귀여운 얼굴을 보다가도 마음은 붕대로만 향한다. 위탁어머니가 잠시라도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바로 눈물을 흘리는 아이... 다행히 희망이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 희망이! 참 다행이야

너를 도울 수  
있어서...



● 근시 시력 치료를 위해 안경을 착용하는 희망이

## 두개유합증, 두개골조기유합증

희망이(14개월, 가명)는 지방에서 청소년 미혼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출생시 몸 전체에 힘이 없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어느 아기들과 다름없어 보였다. 그러나 위탁가정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생후 2개월이 넘었는데도 희망이는 이 월령의 다른 아기들처럼 고개를 가누거나 발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목을 받치지 않으면 뒤로 쳐졌고 다리는 축 늘어져 힘이 없었다. 종합검사결과 심방중격결손, 폐동맥협착과 함께 경막하출혈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정밀검사가 들어가는 4개월간 물리치료도 병행했다. 여러 복잡한 검사 결과 희망이가 또래 아기들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원인은 두개유합증(Craniosynostosis). '두개골조기유합증'이라고 말하는 이 질병은 일찍 두개골의 봉합선이 합해져서 아이의 뇌조직 성장에 치명적 장애를 주는 심각한 질환이다. 신생아들은 신체뿐 아니라 뇌도 자라는데 뇌를 보호하고 있는 두개골도 자랄 수 있도록 유연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나 희망이는 반대로 두개골이 이미 결합되어 뇌가 자라지 못해 신체장애를 가져 온 것. 희망이는 빠른 수술과 재활을 위해 서울로 왔다.

## 검사, 수술, 진료, 물리치료

“처음 만났을 때가 희망이가 10개월 즈음이었어요. 대부분 그때면 아기들이 정신없이 기어 다니는데 희망이는 몸으로 구르기만 조금 할 뿐 미동이 없었어요. ‘사람구실 할 수 있겠냐’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김경순 위탁어머니는 희망이를 만난 12월부터 3개월간은 격일이 멀다 하고 병원과 홀트를 오가는 생활을 했다.

수술 전·후 검사와 진료, 몸이 굳지 않도록 물리치료까지, 온 가족이 희망이 진료를 위해 도와야만 했다. 희망이는 돌을 앞둔 12월 두개골을 벌려 주는 장치를 다는 수술을 받았다. 나사모양의 장치가 희망이 뇌성장을 돕도록 두개골 성장을 조정해 주는 것이다. 김경순 위탁어머니는 수술 후 희망이 머리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했다. 이제는 매일 소독하며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머리위에 어지럽게 놓인 이 쇠조각들이 ‘우리 희망이를 살리고 있구나!’란 생각에 흥물스럽던 것도 사랑스럽기만 했다고. 자칫 이 질병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아이는 장애를 갖고 평생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수술 전·후



## 나눔이 만들어 준 선물, ‘기적’

“이제는 무릎으로 기고 앉기도 해요. 잡고 일어서지는 못하지만 제법 앉아서 놀아요! 손뼉 치기, 공굴리기, ‘빠이빠이’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희망이 요즘 어머니는 정재원 홀트부속의원 원장님 물음에 김경순 위탁어머니가 속사포(?)처럼 쏟아 놓는다. 너무 신난다는 듯이, “12월 15일 수술하고 그 바로 이튿날, 희망이가 침대난간을 잡으며 힘을 주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수술 전에는 팔에 보호대를 차야지만 뻗을 수 있었거든요. 어찌나 감격스러웠는지...

정말 기적이지 않아요?! 수술 후 한 달 동안 희망이는 다시 태어났다고 할 만큼 변했어요! 이제 정상 아이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아이’가 홀트의료지원으로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하고 있다. 후원자들이 주는 사랑과 나눔으로 희망이의 기적은 시작된 것이다.

다행히 심방중격결손도 폐동맥협착도 이전 없어지고, 곧 머리를 싸고 있는 장치도 뺄 예정이다. 물론 아직까지 신체발달이 정상에는 못 미쳐 물리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시력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지만 희망이 머리에서 예쁜 머리카락이 나고, 핀도 뽑고 머리도 길게 묶을 수 있을 때가 되면 혼자 서서 한발 한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그 날이 빨리 보고 싶다.

글\_김은희·홍보팀



##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찬호는

똥린 입천장을 봉합하는 수술로 이제는 우유뿐 아니라 이유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의 성장을 막고 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수술도 잘 회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리쪽 근육을 풀어주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모든 수술이 잘되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02-331-7073~4

www.holt.or.kr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아미봉사단 파란 산타가

# 트라피앙 안찬마을에 왔어요!

하루 2달러 4인 가족 생활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도, 병원까지 갈 교통 수단도 없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빈민지역 트라피앙 안찬지역 주민들을 위해 파란 산타들이 나타났다! 루돌프 썰매대신 비행기를, 빨간 주머니에는 의료용품 가득 싣고 '부산대 의대 아미봉사단'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돌아왔다.

Cambodia  



### 점심조차 먹을 수 없었던 시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홀트아동복지회 운봉종합사회복지관과 20여 년 나눔을 쌓아 준 '부산대의대 아미 봉사단(단장 손한철 박사의 의료진 21명)이 캄보디아 봉사길에 동행해 주었다.

강제절거민들의 이주지라 상하수도 시설도 화장실도 없다보니 늘 방문길마다 아동들과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웠는데 국내진료뿐 아니라 2010년까지 6회차 해외의료봉사를 경험한 저력 있는 봉사단이 함께 해 주시니 마음이 든든했다.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었다. 12월 11일 프놈펜 시청의 도움으로 의료기기뿐 아니라 약품까지 무사히 통관을 마치고 봉사단은 프놈펜에 첫 발을 내 디뎠다. 겨울 한파로 온몸을 움츠렸던 몸을 필 사이도 없이 후속 덥고 습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그러나 봉사단을 기다리고 있을 환우들을

생각하며 더위도 잠시, 기쁜 마음으로 떠나 할 것 없이 약품들과 의료기기를 분주히 날랐다.

12월 12일 의료봉사 첫 아침이 밝았다. 숙소에서 한 시간 반을 달려 봉사단을 기다리고 있던 환우들을 만났다. 비록 입성(?)도 좋지 못하고 안색들도 어두웠지만 봉사단을 위해 탁자와 의자를 마련하고 꽃다발을 준비해 준 마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미봉사단은 지난해 펼친 베트남 진료에서 보통 4일간 260~330명 환우들을 진료했다고 했다. 캄보디아의 의료상황이 더 열악한 탓일까 첫날 진료인원만 240여 명. 모두들 점심도 거른 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변검사, 기초혈액검사, 혈압 및 맥박 체크, 초진, 각 담당의별로 진료, 초음파 촬영, 약 조제 등 의자에 한 번 앉을 겨를도 없이 첫날 진료가 진행되었다.



- 1 점심도 거르고 의료진료봉사를 나선 '아미봉사단' 의료진
- 2 정기검진이 처음인 주민들은 모든 진료과정을 어색해 했다.
- 3 고된 노역으로 손 발이 상처로 가득했던 어른신
- 4 정확한 검진을 위해 애써 주신 '아미봉사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 아픔으로 무뎠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처방하다.

상상할 수 없는 노역의 무게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한 노인의 손과 발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숙연해 졌다. 옛된 얼굴의 산모는 출산을 했는데도 정작 본인의 혈액형조차 알지 못했으며, HIV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간신히 본인의 이름과 나이만을 말할 뿐이었다. 상처가 나도 항생제 하나 구하지 못해 상처에 고름이 차고 결국 큰 종기가 되어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도 의료진의 도움으로 진료 받을 수 있었다. 꼼꼼히 약의 사용법도 알려 주고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었다. 줄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많은 환자들을 만나야 했던 봉사단은 13일, 둘째 날부터는 오전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하루 2달리로 4인 가족이 생활하는 이곳 빈민지역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할뿐더러 병원까지 갈 교통수단조차 없는 주민들이 많다.

의료진들은 지금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들을 제공했다. 아미봉사단의 무료 진료는 오랜 건기 끝에 찾아 온 단비처럼 이들의 아픈 상처 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하고 있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표현방법이 다르지만 자신의 상처를 싸매 주고 삶의 고단함을 들어 주는 봉사단을 바라보는 눈빛들에서

그들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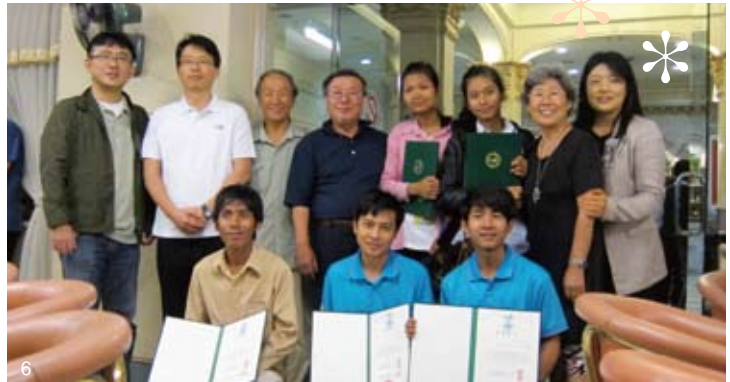
### 다음을 기약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사흘간의 의료봉사에서 900여 명의 주민들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봉사단은 몸이 피곤한 만큼 더 큰 보람과 환희를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바쁜 일정가운데에서도 트라피앙 안찬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구충제는 물론 학용품도 준비하여 선물해 주었다. 또 의료봉사 기간 내내 진료실과 약국 그리고 접수대에서 통역을 도맡았던 NPIC(캄보디아 국제기술학교, 총장 김성철 박사) 학생 5명에게 한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마련하여 주었다.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약속하신 아미봉사단 손한철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과 이 의료봉사가 가능하기 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후원자들과 봉사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캄보디아 이곳 주민들은 하늘에서 하얀 눈이 온다는 걸 모르듯이 산타를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의료 봉사단이 그들에게 산타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년 또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해 본다. #HNT

글\_이은정 팀장·복지지원팀



5 진료를 받기 위해 가득 모인 주민들. 4일동안 900여 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6 부산대 아미봉사단 의료진은 통역을 도와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했다.



# “또 올 수 있겠죠?! 꼭 다시 오고 싶어요”

## 장애입양인을 위한 Happy Together 2011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홀트 입양가정 지원센터 직원들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호텔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로 종종거리며 뛰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첫 모국 방문 길, 장애인으로 입양인으로 떨리고 낯선 첫 모국인들이 길을 온 마음으로 환영해 주고 싶었다. 'Happy Together 2011'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장애로 모국방문이 어려웠던 15명의 입양인을 포함 23명의 입양가족을 초청하여 7박 8일간의 모국체험과 국내외입양가족과의 만남으로 자긍심을 증진시키고자 주최되었다.

### 왜소증, 안명기형, 뇌성마비...

### 각기 다른 사연의 소중한 일곱 가족

홀트에서는 1995년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장애 입양인 초청 연수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2가족만 초청한 작은 행사였기에 이번 행사의 의미는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미국 입양인과 가족들밖에 초청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이들 못지않게 행사를 준비한 담당자들도 들뜬 하루였다.

장애를 가진 입양인과 가족을 위한 행사라 일정이 너무 빠빠해도 안 되고 음식이며 언어,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년 국외입양인 모국 연수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자부심에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했다. 입양인들과 가족들은 자신들의 모국이, 자신들에게 다른 삶의 기회를 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모국방문 기회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초청된 입양인 중에는 왜소증 장애를 가졌지만 미국 홀트인터내셔널에서 전산 직원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조던과 한국에서 입

양된 조던의 여동생 텔사, 안면 기형 장애로 수술 차례의 대수술로 점점 자신의 얼굴을 찾아가는 매건과 왜소증 오빠인 샘, 이들에게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 양부모님, 가장 나이가 어려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다운증후군 아이 거스와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는 거스의 부모님, 심한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음에도 휠체어 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걸어 다녔던 카라와 그 언니이자 입양인 민다, 소인증 장애를 가진 대철과 양어머니, 뇌수종부터 뇌성마비까지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홀트의 다섯 아이들과 이들을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양부모, 엄지손가락 외의 네 손가락이 모두 없지만 장애로 인해 못할 것은 없다는 페이스와 같은 입양인 오빠 파키, 한국 교포인 양어머니까지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진 소중한 일곱 입양 가족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 모국향기를 전해 준 Happy Together 2011

“Happy Together 2011”은 장애를 갖고 국외로 입양된 성장 입양인과 그 입양가족에게 모국의 문화와 관습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다른 국내·외 입양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입양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실 장애를 갖고 태어나 친가족으로부터 입양 의뢰된 아이들은 대부분 국내외 어디도 입양되지 못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된 자체가 이들에게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모국을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 이번 기회를 통해 입양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다들 만족해했다.

또한, 장애 국외입양인들을 위한 모국체험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조병국 전 홀트의원 원장님께서서는 행사 기간 동안 기꺼이 참가자들의 멘토가 되어 주시겠다고 자청하셨고 이는 모든 참가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조병국 전 원장님은 실제로 입양대상 아들이 홀트에 오는 순간부터 입양되기 전까지 진료를 도맡았기에 이번에 참여한 많은 입양인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진 모습으로 모국을 찾아온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갖고 계셨다.

입양인들이 도착하고 다음날 홀트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행사가 있었다. 홀트 강당에 들어선 이들을 환영해주는 직원들과 각종 언론에서의 취재 열기는 참석자들에게 모국방문의 설렘과 기쁨을 더욱 안겨주었다. 특히, 많은 전·현직 직원들이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지내다 입양된 조던, 샘, 대철과 홀트일시보호소에서 보호받다 입양된 거



1



2

1 안면기형 장애를 가진 매건과 왜소증 오빠인 샘, 2 뇌수종과 뇌성마비까지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다섯 형제들, 3 네손가락이 없어도 못할게 없다는 페이스와 가족, 4 조던과 여동생 텔사.

스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모국의 많은 추억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릴 때 맛보았던 모국의 김치와 불고기 맛을 기억해 내고 아련한 한국의 냄새와 동네 풍경 등을 떠올리며 모국의 향수에 젖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 다시 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지 보석함을 만드는 전통 공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국체험이 시작되었다. 서툰 솜씨로 한지를 오려 붙이고 서로의 것에 대해 폄평하며 나를 멋진 보석함을 만들었다. 한국 민속촌에서 처음 본 사물놀이, 줄타기 등에 감탄하며 모국의 전통을 몸으로 느끼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복궁, 청와대, 인사동, 63빌딩, 한강 유람선 투어와 유일한 분단국가인 모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DMZ 방문도 하였다.

입양인들은 뿌리 찾기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입양 배경 기록을 열람하고 입양 전까지 돌봐 주었던 위탁모나 시설의 생활지도 교사를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친가족을 상봉하거나 입양 전까지 자신이 머물렀던 보육 시설을 방문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진 참가자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국의 입양인들과 달리 많은 장애 입양인들은 친부모에 의해 입양 의뢰된 것이 아니라 기아로 발견되어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많아 어느 모국 방문단처럼 친가족 찾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뿌리 찾기 이후에는 모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입양 전에 거주했던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방문하여 국내

입양 가족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비록 국내입양 가족과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입양 가족'이라는 공통점만으로도 서로에 대해 교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던 참가자들은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장애 입양인과 가족들에게 이러한 행사가 더 많이 생기기를 소망하였다. 어떤 참가자는 7박 8일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의 인생에서 빠져 있던 무언가를 다시 채우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며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홀트에 들르겠다는 말과 "Happy Together 2011"을 주관한 홀트와 후원처인 보건복지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행사이기에 언제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한 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 온다. **홀트**

글 \_ 설은희 사회복지사 · 입양가정지원센터



# 사랑의 가치를 나누다

중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좀 쉬긴 했지만 올해 아기를 본 지 18년째가 된 이층 순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주영



1994년 4월에 위탁봉사 교육을 받고 7월 25일, 김주영 (가명)이라는 아기를 받았습니

다. 이 아이는 잠투정이 심해서 매일같이 30분을 울면 겨우 20분을 자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가수가 되려나? 했지요. 그 아이가 작년 홀트아동복지회 모국방문으로 왔어요. 몰라보게 훌쩍 멋지게 잘 컸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다 컸더라고요. 아플 것 같아서 식사할 때 제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 주었죠. 그랬더니 양어머니가 애기취급을 한다며 웃더라고요. 양어머니에게 '어려서 많이 울어서 네가 가수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노래는 잘하는지' 물었더니, 노래는 못하지만 대신 공부는 잘 해서 동생들을 많이 도와준다고요. 첫아이라 그런지 그 아이 보내고 남편은 일주일을 잠 못 이루고 밤을 새웠습니다. 애기 요를 끌어안고요. 제 마음이 더 아팠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은지(가명)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29주, 1.34kg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심장에 장애가 있어서 우유 빨 때 힘이 없었어요. 조금만 울어도 얼굴이 새파래지고요. 은지를 돌보는 동안 울리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조심을 많이 했죠. 2년 전에 위탁모 연수에서 만났는데 예쁘게 잘 크고 잘 자랐더라고요. 한참 만에 만났는데도 저를 잘 따르고 아이가 밝게 잘 큰 모습을 보니 너무 보람 있었습니



은지



노지후(가명)라는 아이도 28주, 1.3kg으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허리에 힘이 없어 앉지도 못했어요. 다행히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해서인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후는 아빠를 많이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퇴근하면 저는 아는 체도 안하고 아빠만 졸졸 따라 다녔죠. 아빠가 씻고 나면 옷도 가져다주고, 아빠가 밥 먹으면 그 무릎에 앉아 있고, 밖에 나가면 따라 나가고... 완전히 아빠 아이였죠. 그래도 저랑 같이 쇼핑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18개월이라 제법 말도 통했던 지후는 제 벗이기도 했지요. 지후가 입양되고 한참 지나서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담당선생님한테라도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보고 싶다는 말도 털어놓지도 못하고 전화를 걸고는 그냥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 그땐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그리웁니다.



박영수(가명)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1.5kg 미숙아인데다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머리에 물이 찼다고 하더군요. 우유 먹일 때 머리를 들면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죠. 다행히 배개를 받쳐 머리를 들어서 우유를 먹었더니 아이가 편해 하더라고요. 자라면서 허리도 약한 아이라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고 물리치료를 7개월 정도 받다가 입양을 갔죠. 근데 영수는 젊은 누나들만 좋아하고 노인을 무척 싫어했어요. 홀트로 물리치료를 오는 버스에서 노인이 영수를 귀엽다고 만지려고 하면 싫다고 피하면서도, 젊은 학생을 보면 자기가 먼저 아는 체 하면서 좋아 하더라고요. 영수도 미국 위탁모 연수 길에 만났는데

그곳에서도 한동안은 노인을 거부했네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졌지만요.

이제 걸음마도 잘하고 그곳에서도 물리치료를 재미있게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집에 가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라고요. 저를 잊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 연수를 가기 위해 아기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성실하게 하다 보니 미국에도 다 가보게 되더군요. 미국 연수를 통해 입양 보낸 아이를 만나고 하니 새삼 보람이 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위탁모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고요. 양부모들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또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또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돌볼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시작된 한 위탁봉사자의 이야기는 시작 3분도 안되어 43회 장기근속 위탁모 및 명예퇴직 수여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아이들은 위탁봉사자들의 사랑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위탁봉사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새로운 부모를 만날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는 봉사입니다. 문의 02-331-7040~7046



# “세상에 태어나서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아봤어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해 준  
삼성화재 총청업무팀

201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중년의 신사와 미소가 고운 젊은 남녀가 산타모자와 옷을 갈아입고 행복한 미소와 목격한 선물보따리를 메고 아침뜰(미혼모자 시설)의 어린엄마들 앞에 섰습니다. 미혼 엄마와 아기들의 소원선물을 준비하고 맛있는 외식까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준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바로 봄부터 인연을 이어온 삼성화재 총청업무팀의 직원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아봤어요...” 파티 중간에 한 미혼엄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미혼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가족과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본 적이 없었던 어린엄마에게겐 생애 첫 파티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생명 총청업무팀의 직원들은 사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아침뜰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후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파란조끼를 입고 사랑이 가득한 핑크빛 함박웃음으로 청소부터 아기돌보기까지 어린엄마들을 위한 갖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2011년은 삼성화재 직원들을 만나 너무나 특별하고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아침뜰에 살고 있는 엄마와 아기들의 간절한 사연을 전할 수 있었고, 사연을 전해들은 직원들은 아

침뜰 엄마와 아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삼성화재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최고의 금융기관을 모토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뜰을 찾아주신 총청업무팀 역시 사내 우수봉사 부서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했던 팀으로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아침뜰에 다양한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화재보험업계 아침뜰 엄마들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었고, 혼자 있어도 든든히 먹어야 한다며 설, 추석이면 어김없이 선물을 보내 격려하고, 미혼모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탁기와 공기청정기는 물론 어린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까지 알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봉사자로서 처음 만났지만 지금은 아침뜰 산모들과 ‘삼겹살파티’까지 함께하는 살가운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혹은 언니, 오빠의 마음으로 아침뜰 엄마들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시는 삼성화재직원 여러분과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혀주는 삼성화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글 \_ 김수련 사회복지사 · 아침뜰

# “ 멩똥! NHN(네이버) 몰래 산타 선물이 도착했어요! ”

“물건이 도착했는데 어디다 둘까요?”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두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벌써 세 번째, 12월 이맘때면은근 기다려집니다. 퀵서비스 차량 두 대에서 알록달록한 선물꾸러미 100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차례 걸쳐 나르면서 꼭 산타가 된 듯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승훈(가명)꺼대! 블록을 갖고 싶었는데 진짜 블록이야! 승훈이 정말 좋아하겠대!”

선물이 아동양육팀에 전달되자 담당 선생님도 신이 나서 자기가 양육하는 아동들 선물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사무소가 선물꾸러미에 신이 난 하루였습니다.

네이버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주)NHN은 해피빈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들 또한 남다른 자원봉사로 곳곳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즈음, 홀트아동복지회가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도 서프라이즈(?)한 연락이 왔습니다. “홀트 아가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주)NHN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산타처럼 선물을 전해 주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야호!’ 그렇지 않아도 홀트에서 보호 중인 많은 아동들이 돌이 지나 필요한 물건이 제법 필요하던 차였습니다.

선물을 받고 난 후 선물보다 더 감동받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은, 만난 적도 없는 아동들을 위해 아끼용품을 구입하고 정성껏 포장하여 따뜻한 메시지까지 적는 (주)NHN 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구~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걸 샀누! 고마워라! 감사해라! 지애(가명)야 입어보자” 위탁어머니가 아이들보다 더 즐거워하기도 하는 NHN의 몰래산타 선물! 옷부터 인형, 신발, 장난감피아노, 뽀로로, 타요, 토마스 등 마트 유아코너를 옮겨온 듯 아동들이 좋아할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비록 아동들이 여러 산타 선물을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임직원분들이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은 꼭 전해지리라 여겨 집니다. 크리스마스에 내린 눈처럼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찾아와주세요!! #홀트

글\_김병수 사회복지사·홍보팀





주민과 함께

사랑을 행동으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운영철학에 맞추어 주민과 함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역사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린 귀, 낮은 마음으로 일하는 그들을 만나 주민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 소통에서 찾는 복지증진의 해답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공동체 건설을 위해 30여 명의 직원과 2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근무하고 있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주민과 함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홀트 아동복지회의 Holt를 형상화한 4개의 미션 Having a healthy family(건강한 가정 만들기), Open communication with the local(지역주민과 소통하기), Linking up with excluded neighbors(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Toward a place for learning and culture(배움과 문화의 장 만들기)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아동들의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인 '행복씨앗'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여성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운영, 지역내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 나눔활동 프로그램인 '청콧짱'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모두가 즐거운 행복한 쉼터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수영구는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사업과 함께 수영구 전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여성에 이르기까지 지역내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민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자기계발과 적극적인 마인드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복지관의 위상 정립,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한 전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들의 목표와 의지가 빨리 이루어져,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발전하길 바라본다.

## MINI INTERVIEW

### 이진희 관장

지난해 우리 복지관에서는 마을기업과 도서관, 행복씨앗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주민들이 신규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과 자원봉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 ‘행복씨앗’ 부모교육프로그램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행복씨앗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부모-자녀 상호작용평가를 바탕으로 ‘저위험군 아동’을 위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프로그램, 부모교육, 보호자 자조모임을 실시하는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8월까지 총4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수영구 거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기수별 15가정을 선발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저위험군 아동에게 정서지능 향상을 통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향상,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님들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자녀와의 유대감 향상, 고위험군 아동에게는 놀이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각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프로그램, 부모교육, 보호자 자조모임, 놀이치료가 어우러졌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가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보고 적용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유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MINI INTERVIEW**

행복씨앗 부모교육프로그램 1기 참가자 **안애경 씨**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이 뿐만 아니라 나와 남편, 우리 가족 관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감정코칭 교육을 통해 화가 나더라도 가족에게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웠죠. 다음 참가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부모-자녀상호작용증진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꼭 병행해서 듣고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가족에게 적용해 행복씨앗을 멋진 행복나무로 키워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한 나눔의 실천,

## 가족봉사단 '얼토당토'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홀몸어르신과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진행된 놀토를 통한 가족자원봉사단 프로그램 '얼토당토(얼싸구나 토요일, 당당한 우리가족 토요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들과 홀몸어르신들이 결연을 맺어 함께 요리하기, 꽃꽂이, 신문 만들기, 편지쓰기, 영화보기, 식사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가족 안에서 나눔을 배우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 MINI INTERVIEW

마을기업 '천연애' 참여자 **김선미 씨**  
(베트남)

천연애에서 일한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복지관에서 배운 천연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어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 '천연애'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다문화가정 여성의 사회참여 조력자, 마을기업 '천연애'

다문화가정 여성 및 저소득가정 여성이 천연제품제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 기술을 익히고 향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 '천연애'.

이곳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 4명과 강사 1명이 월 38시간 근무를 하며 천연제품(클렌징 오일, 바디오일, 천연비누 등)의 연구, 제작, 판매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매출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마을기업에 관련한 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회를 통해 제품 개발 아이디어 및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이 모국어와 한국어 등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천연제품 다문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다문화가정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민**

### MINI INTERVIEW

얼토당토 1기  
참가자 **박미정 씨** 가족

봉사활동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면서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할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보면서 정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신문도 같이 만들고 요리도 해서 가져다 드렸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지속적인 만남을 하기로 약속했으며, 2기 참가자들에게 바라는 점이라면 참가자 가족들의 유대관계를 더 쌓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만났던 배워서 할머니에게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나눔!

기부남이 제안하는 홀트 후원 방법

## 어렵지 않아요!!


홀트아동복지회의 후원자가 되고 싶으시다구요?  
어렵지 ^^\* 않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홀트에는  
이런  
후원들이  
있어요.





친부모랑 안타깝게 이별한 아기들을 돌보는 아동양육후원,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후원, 위기가정아동 교육비와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위기가정아동후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과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야하는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후원이 있어요. 참 해외아동후원도 새롭게 시작되요. UN이 정한 최빈국 캄보디아, Killing Field 잔혹한 역사의 잔재 속에서 공부느커녕 아직도 하루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내요. 후원자님의 손길이 절실해요.

 컴퓨터가 편하세요? [www.holt.or.kr](http://www.holt.or.kr) ▶ 로그인 ▶ 나눔참여 ▶ 정기후원 신청 ▶ 후원신청이 바로 되요.

 은행이 편하세요?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79037-01-000461, 예금주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금을 이체하시고 홀트후원팀 02-331-7073 또는 홀트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보내드리려면 후원자님 정보가 필요하대내요.

 저금통은 어떠세요? 사랑나눔상자 신청은 [www.holt.or.kr](http://www.holt.or.kr) ▶ 로그인 ▶ 나눔참여 ▶ 사랑나눔상자 신청

 스마트폰으로도 후원이 된대요. [m.holt.or.kr](http://m.holt.or.kr)로 후원신청하면 되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누르세요. 1통에 2,000원이 기부 되요!  
ARS 060-700-1006

자,  
이제 홀트의  
후원사업에 대해  
아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냐고요?  
이거 역시,  
어렵지 않아요!



# 2011년도 사용내역도 알려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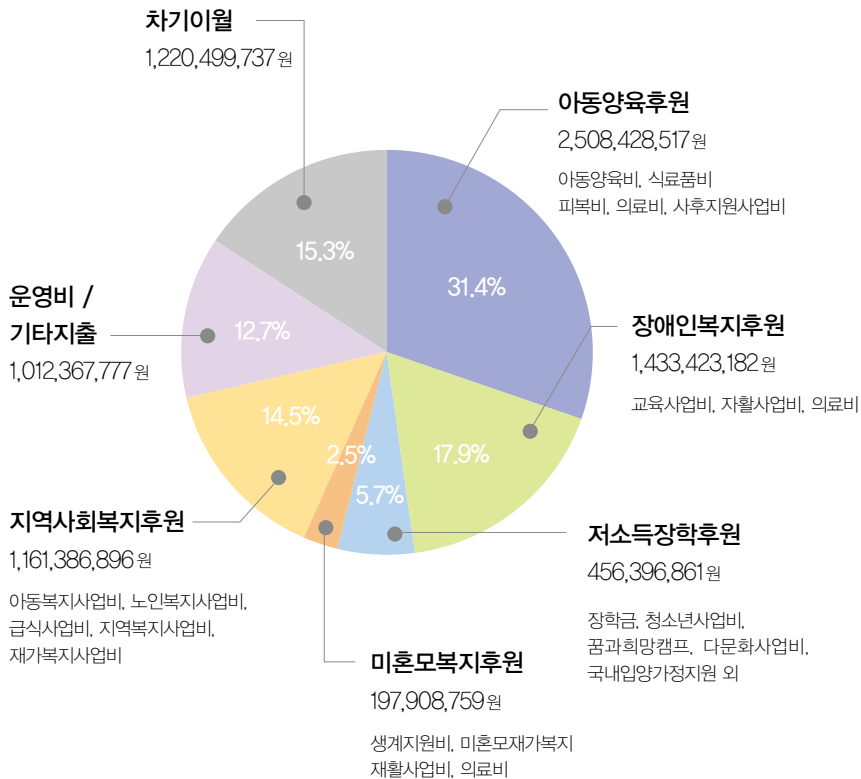
## 2011년도 후원금 사용내역보고 (2011 1/1-12/31)

### ● 세입

전기이월	776,299,621원
후원금수입	7,214,111,108원
<b>계</b>	<b>7,990,410,729원</b>

### ● 세출

<b>계</b>	<b>6,769,910,992원</b>
----------	-----------------------



재  
이제 우리 모두  
홀트패밀리가  
되어볼까요?  
홀트아동들이  
후원자님을  
기다려요.



홀트아동복지회는 홀로된 아동과 빈곤·장애를 가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국에서 복지사업을 투명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캄보디아 방과 후 교육 지원 및 급식지원도 2012년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공헌 ●

**엔프라니, 싱글맘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엔프라니의 자사 브랜드숍인 홀리카홀리카는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된 '러브 홀리카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과 엔프라니가 매칭을 더하여 1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12월 4일 우리회에 전달해 주었다.

**롯데백화점 다문화가정 돕기 후원**



롯데백화점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1월 27일 다문화가정 돕기 '사랑의 대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의 일부인 후원금을 우리회에 전달했다.

**홍보대사 선 정혜영 부부 위기가정 아동을 위해 1억 원 기부**

홀트아동복지회 선 홍보대사는 1월 20일 우리회를 방문하여 '2012 꿈과희망지원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2009년부터 선 정혜영 홍보대사는 전국 100명의 위기가정 아동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구석구석공식여행사, (주)이베이코리아 나눔여행 수익금 전달**

한국관광공사와 구석구석공식여행사, (주)이베이코리아는 12월 13일, 10월 한 달 동안 G마켓을 통해 '대한민국 나눔여행 상품 특선 25'를 특가 판매한 수익금을 1,500만 원을 전달했다.

**해피랜드 1억 원 상당 겨울의류 후원**

유아용품 전문업체 ㈜해피랜드F&C는 11월 30일에 우리회 아동들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겨울 의류 및 내의를 후원하였다. 해피랜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아동복을 지원하고 있다.

● 본부 ●

**백지영, 유리 씨 홍보대사 위촉식**



가수 백지영 씨와 유리 씨를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 2월 28일 위촉했다. 2009년부터 우리회 후원을 시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및 행사에 자사 제품을 기꺼워 지원하였고, 백지영 씨는 2011년 홀트후원자대축제 재능기부로 공연에 참여하며 소외된 아동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홀트 홍보대사 정혜영 장학금' 첫 수여식**



'홀트 홍보대사 정혜영 장학금' 첫 수여식이 2월 24일 개최되었다. 장학금 기증자인 선 정혜영 부부가 참석하여 27명의 장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홀트정혜영 장학금'은 지난해 두 분이 기부한 '오늘 더 사랑해' 인세 129,895,258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장학생들은 장학생들에게는 년 400만 원의 장학금이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홀트의원, 개원 30주년 맞아**

홀트의원들이 1월 5일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홀트의원은 보호 및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1982년 건립, 입양가정을 기다리는 아동과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 아동, 국내 입양아동 및 미혼부모가정의 아

동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장애입양인 및 가족 초청 모국연수**



보건복지부 추가 민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국외장애입양인 및 가족 초청 모국연수인 2011 Happy Together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7가족 23명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장애로 인해 모국방문의 기회가 적었던 참가자들과 가족들은 한국문화와 모국을 경험하는 시간과 국내입양가족들, 위탁모, 친가족과의 만남 등을 가졌다.

**제43회 위탁모 장기근속 명예퇴임 시상식**



제43회 홀트위탁모 장기근속 및 명예퇴임 시상식이 12월 9일 개최되었다. 5년(17명), 10년(8명), 15년(6명), 20년(1명) 동안 봉사해 주신 34명의 장기근속 어머니들과 명예퇴임하시는 김기년, 차금애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부상을 전달하였다.

**홀트한사랑회 송년모임 가자**



홀트한사랑회는 11월 20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 홀에 모여 송년모임을 가졌다. 65가정 25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이날 접수된 참가비 전액과 아이들이 모금한 돼지저금통을 모아 모금된 500여 만 원을 아동양육과 미혼모돕기에 기부하였다.

### 말리홀트 이사장, MBC 사회봉사대상 특별상 수상



말리 홀트 이사장은 11월 18일 개최된 2011년도 MBC 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50여 년간 입양아와 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 지방사무소 ●

#### 강원사무소 강원랜드 직원일동 후원



강원랜드 카지노본부 직원일동은 12월 23일 강원사무소를 방문, 아동복지를 위해 1,500만 원을 전달했다.

#### 경기사무소 위탁모를 위한 송년회 개최



경기사무소는 경기후원회 후원으로 12월 7일

홀트 아기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탁어머님들을 위한 송년회가 열렸다.

### 대구사무소, 대구사회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 실시

2012년 한해 국내입양대상아동들과 가족자원봉사단을 연계하여 가족들에게 아동을 통한 의사소통 증대와 동시에 가족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들에게는 국내입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부천사무소, 홀트한사랑회 부천지역모임

부천사무소는 2월 11일 홀트한사랑회 부천지역모임을 열고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에 대해 말하기'를 주제로 부모교육과 친교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동해 주신 (주)삼진제약에 감사드린다.

### 울산사무소, 홀트한사랑회 송년모임



울산사무소는 12월 26일 울산지역 홀트한사랑회 가족과 함께 송년모임을 열고 "이해와 소통을 위한 공감적 대화법" 등 부모교육과 친교시간을 가졌다.

### ● 홀트일산복지타운 ●

#### 일산타운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홀트일산타운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2월 8일 홀트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후원사인 메리츠화재,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미국의 후원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김형복 명예총재님의 출판기념회, 국제



홀트아동복지회 방문팀과 함께하는 성탄파티 등 다채로운 시간이 진행되었다.

### ● 홀트학교 ●

#### 졸업식



2011학년도 홀트학교 졸업식이 2월 17일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45명의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수하였다.

#### 이화원 교사 2011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

홀트학교 이화원 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이전 교육인적자원부)와 조선일보사, 방일영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선정한 '2011년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하였다.

### ● 종합사회복지관 ●

####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가 전국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이 주관하는 2011년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국 최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고양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12월애 행복을 찾아 떠나는 나눔여행 개최

KBS재능나눔봉사단과 함께하는 '12월애 행복을 찾아 떠나는 나눔여행'이 12월 2일 복지관과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고양시민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재능나눔봉사단 공연, 장애체험과 의료진료, 지적장애인탁구대회, 장애인보장구수리, 고양보호작업장 두부직업훈련실 개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겨울캠프 실시



아동·청소년 아간보호프로그램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14명이 1월 26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백스코 트리아트체험 및 영화 관람을 실시하였다.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희망드림 교복지원 사업 진행



교복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습의 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남시복지관과 하남시청이 함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경정운영본부에서 28,800,000원을 후원받아 수급자, 한부모가정 144명의 청소년들에게 교복구입비 및 쿠폰을 전달하였다.

##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맥치과 병원과 함께하는 무료치과 진료 실시



대구복지관은 맥치과 병원의 재능기부로 2월 15일부터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정기 치과무료검진을 시작하였다.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여성사회복지재단 지원 '늘 푸른 도서관' 개관식



수영 복지관과 여성사회복지재단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늘푸른 도서관'이 12월 21일 개관하였다. 앞으로 늘푸른 도서관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 미혼모자시설 ●

### 고운돌, 홀트고운학교 2회 졸업식



홀트고운학교 제2회 졸업식이 2월 17일 열렸다. 2011년 수업자 중 총 5명 수료 중 3명 소속학교로 복귀, 2명 고등 졸업을 하였다.

사랑들, 대구지검 서부지청 후원



매년 어김없이 찾아 주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후원자분들이 1월 18일 전통 설을 맞이하여 사랑들을 찾아 소중한 후원금과 아동용품, 생활용품 등을 전달해 주었다.

## 아름들 양육모들의 모임 "용감한 마더스"

아름들에 머물렀던 양육모들의 자조모임이 12월 16일 열렸다. 아름뜰로 친정나들이를 온 양육모들은 아기 발달체크와 건강상담을 받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아침들, 평가회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자원봉사 강사와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2월 29일 평가회를 열고 미혼엄마들의 건강한 출산과 자립을 돕는 아침들이 되고자 노력하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초등학교 취학 전 적응 프로그램 실시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201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 총 8회기에 걸쳐 216명이 참석하였다.

###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수성구센터는 12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1년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에서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평가'의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메리츠화재와 함께 하는 “글로벌 해피리더”



메리츠화재와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하는 경제캠프 글로벌 해피리더프로그램이 한 부모, 저소득, 다문화, 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3일간 경제교육을, 1월 30일부터 경제캠프를 진행하였다.

##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회 마포구다문화축제 개최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월 11일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제1회 마포구다문화축제 '가족 그리고 하모니'를 진행, 다양한 나라 체험활동과 홍보부스를 통해 다문화인식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마포구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봉사단 창단



다문화가족봉사단 따봉(따뜻한 마음을 가진 봉사단)은 1월 20일 설날을 맞이하여 제일경로당에 방문하여 합창공연도 펼치고 어르신들의 벗이 된 하루를 보냈다.

##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축제 열어

춘천시 다문화 축제가 12월 23일 홀트회관 6층에서 개최, 언어영어교실 발표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을 펼쳤으며, 더불어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과 세계 각국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테마공간을 열었다.

## ● 홀트아동발달지원센터 ●

###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홀트아동발달지원센터가 바우처 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되어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 아동들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 전주영아원 ●

### 희망나무 사랑예술제



전라북도주관으로 도내 16개 시설아동들이 참여한 제6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가 12월 10일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전주영아원 10명은 “장구로 떠나는 동물나라여행”과 댄스 등을 선보였다.

## ● 어린이집 ●

### 마포어린이집

설을 맞아 원아들이 모두 모여 1월 19일 전통체험을 즐기며 명절의미를 배워 보았다.

### 중동어린이집, 22회 졸업식

22회 졸업식이 2월 23일 개최, 슬기반(만 5세)

21명은 졸업을 했다. 졸업생들은 직접 쓴 송사를 낭독하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모두 상을 수상했다.

### 홀트어린이집

홀트어린이집 18회 졸업식이 2월 17일 열려 초록반 19명의 원아들이 졸업했다.

## ● 전국후원회 ●

### 서울후원회, 성남후원회와 신년하례식 가저

서울후원회 성남후원회 주최로 신년하례식을 1월 3일이 가졌다. 이날 모든 홀트가족이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강원후원회, 강원후원회 2012년 정기총회

강원후원회는 1월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명숙 회장의 연임과 유도이 신임 부회장 선임을 결의했다.

### 경남후원회, 회장 취임식

경남후원회 회장취임식과 월례회의가 1월 12일 열렸다. 이날 2012년 홀트후원사업을 활성화하는 업무계획도 논의되었다.

### 광주후원회, 목원배 회장 광주시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상 수상

목원배 광주후원회장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센터 주관으로 「2011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모범 자원봉사자로 선정 되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목원배 회장은 2000년 5월에 후원회 활동을 시작, 11년 동안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 인천후원회, 위탁모 송년모임

인천후원회는 12월 1일 한 해 동안 홀트 아기의 양육을 위해 애써주신 위탁어머니들을 격려하기 위해 송년모임을 개최하였다.



### 임하리, 김하음 첫돌 축하 기부 고맙습니다



하리와 하음이는 2011년 1월, 4일 차이로 태어난 친구입니다. 홀트한사랑회 부천시지역모임에서 활동하시는 하리(임수남, 김기진)와 하음(김철두, 박은주)이 부모님은 2012년 1월, 아기의 첫돌을 맞이하여 많은 지인들에게 받은 축하금을 부천사무소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나눔처럼 하리와 하음어도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하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뜻 깊은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 부천사무소 박혜정 사회복지사

### 트럭과 찾아온 아름다운 나눔에 감사합니다.



임진년의 해가 시작된 1월 4일 홀트 아기들을 위해 기저귀를 후원하고 싶다는 전화와 함께 20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트럭에 한가득 싣고 직접 찾아와 주신 감사한 분.

울산 소재 온라인 쇼핑몰업체 (주)중원 김성훈 대표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07년에도 이번처럼 불쑥 찾아와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기저귀는 홀트 아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늘 홀트 아기들을 잊지 않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온라인 쇼핑몰업체 (주)중원의 김성훈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울산사무소

## 홀트바자회로 초대합니다

(2012 상반기 대바자)

홀트아동복지회는 저소득가정,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바자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소외계층의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따뜻한 봄날, 4월에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나눔바자'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 04. 27(금) 09:00~16:00
- 장 소 | 본부 사옥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70)
- 행사목적 | 의료, 생활용품, 유아용품, 식품, 잡화, 균일가코너 등

- 물품후원 필요해요!
- 종류 및 수량에 관계없이 새 제품(재고상품)이면 가능하며 지원해주신 후원 물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 : 후원팀 02-331-7072)

홀트의 후원금은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행복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 아동양육 후원** 부모가 없는 미숙아,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장 학 후 원**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교육비, 국외 입양인 모국연수 지원
- 국내아동 후원** 결식아동, 미혼양육모 가정 양육비, 의료비 지원
- 국외아동 후원** 국내 다문화 가정아동 및 북한아동, 빈곤국 아동 지원



## 후원신청 안내

### 정기후원 방법



#### 자동이체(CMS)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매월 25일 통장(신용카드)에서 약정후원금이 자동이체 됩니다.



신용카드 · 핸드폰 포인트 기부

### 회원가입·안내

[www.holt.or.kr](http://www.holt.or.kr) / 02-331-7073-4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체의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 일시후원 방법



#### 사랑나눔상자

가족, 친구와 함께 또는 사무실, 학교에 비치해 나눔을 시작해보세요.



#### 사이

수익의 일부를 후원하는 사업장 및 기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특별한 기부

돌, 결혼식, 취업 등 기쁘고 좋은 날을 더 뜻깊게 '나눔'으로 남겨보세요. 기념패를 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479037-01-000461  
예금주 | 홀트아동복지회

## 우 편 엽 서

###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주소 | \_\_\_\_\_



###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4-70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팀



### 후원신청 엽서

후원신청 시 절취선을 잘라 봉합하신 뒤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http://www.holt.or.kr)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http://m.holt.or.kr)





대상 -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가족사진 찍기 놀이



우수상 - 봉어빵 부너



우수상 - 영원한 친구

## 2012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 **공모주제** | “입양,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
- **소재**
  - 입양과 더불어 탄생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 국내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한 작품
  - 입양으로 만났던 소중한 내 아이, 우리가족 행복 순간, 사랑이 묻어있는 가족의 모든 추억
- **응모기간** | 2012. 3. 20(화) ~ 2012. 4. 16(월)
- **참가자격** | 입양가족 누구나
- **공모분야 및 형식**
  - 사진 : jpg 형식 (2200\*1500pixel 이상 권장)
  - 동영상 : 창작 제작한 동영상, 사진 등의 동영상으로 3분 내외, wmv, avi 파일
  - 응모자 또는 가족이 직접 촬영·편집한 작품으로 각 1인 2점 응모 가능

### ● 시상내역

사진	동영상
• 대상 (1점) 50만원	• 대상 (1점) 200만원
• 우수상 (4점) 20만원	• 우수상 (2점) 100만원
• 입상 (5점) 10만원	• 입상 (7점) 20만원

### ● 접수방법

- 제출물 : 참가신청서(www.holt.or.kr)와 응모작
- e-mail 접수 : 사진 photo@holt.or.kr / 동영상 ucc@holt.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70번지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 **발표** | 2012년 5월 9일(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문의** | 홍보팀 02-331-7079 / pr@holt.or.kr
- **주최** |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 | 보건복지부·(주)씨앤엠

※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holt.or.kr 참고해 주세요!

